

연예뉴스 HOT 3

송강호·김민희, '21C 위대한 배우 25인'에



김민희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26일(한국시간) '편집자의 추천(Editor's Picks)'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위대한 연기를 선보인 25명의 배우를 선정해 발표했다. 송강호와 김민희는 각각 6번째와 16번째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송강호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기생충'으로 미국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고,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절묘하게 낚임을 살린 연기로 영화의 중심에 있다"고 평했다.

유키스 출신 일라이, 지연수와 이혼

아이돌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29)가 부인 지연수와 이혼했다. 26일 일라이는 SNS를 통해 "아내와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혼 소식을 공개했다. 이어 "나는 현재 미국에 있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 비록 지금은 아들을 볼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은 1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2014년 6월 혼인신고한 후 2017년 6월 결혼식을 올렸다.

'프듀' 문자투표 조작 사건 대법원서 판결

앨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리즈의 문자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안 PD와 김 CP, 이들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안 P와 김 CP 등 제작진은 '프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한국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왼쪽 사진)과 영화 '기생충'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과 아카데미 수상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말해준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CJ엔터테인먼트

BTS·기생충이 증명한 'No.1 한류'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후보
'기생충', 美 아카데미상 4관왕에
"K팝·한국영화 세계 속 문화로 성장
한국드라마도 넷플릭스 통해 확장"

그룹 방탄소년단이 25일 한국가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후보로 오르면서 새삼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한국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데 이는 것으로, 한국 콘텐츠의 힘을 새롭게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방탄

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은 영화와 대중음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와 대중성을 인정받은 대표적 상에 도전해 얻은 성과로 꼽힌다. 더욱이 전 세계 영화와 대중음악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최영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도 결국 케이팝의 폭넓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한 또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약상도 만만치 않다. 한국영화와 드라마 역시 해외시장을 넓혀왔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한국 콘텐츠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해온 성과를 배경으로 찾는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백승혁 미래정책팀장은 올해 초 "한류의 지속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에서 "1990년대 한류 붐이 시작돼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아시아권 중심에서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속 문화로 성장"했다.

실제로 ▲2000년대 영화 '춘향전', '올드보이', '밀양' 등 칸 국제영화제 수상 등 한국영화의 질적·양적 성장 ▲1990년대 후반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한 케이팝의 인기 ▲아시아를

넘어 미주·유럽·중동 등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가며 최근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영역을 더욱 확장한 한국드라마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 1980년대 이후 태어나 자라나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획력을 갖춘 '영상세대'가 엔터테인먼트분야에 진출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 콘텐츠를 생산해낸 것도 배경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비롯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이 같은 요인에 더해 전 세계 유통망을 지닌 콘텐츠 플랫폼을 무대 삼으면서 해외영역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다시 2단계...방송연예계·극장가 어찌나

연말 콘서트·팬미팅 연기 불가피
영화계도 방역 강화 속 비상모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583명으로 폭증한 가운데 방송연예계의 위기감도 더욱 커졌다. 일부 드라마와 영화 촬영현장에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제작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잇따른다. 수도권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수들은 콘서트와 팬미팅 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극장 관객수도 다시 줄어들면서 극장가와 영화계의 시름 역시 깊어지고 있다.

●중단... 연기... 취소...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는 방송가이다. 그동안 드라마 촬영현장은 극장가나 주요 공연계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속출하면서 촬영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MBC '나를 사랑한 스나이퍼'를 포함해 방송을 앞둔 '달이 뜨는 강', '보쌈', '설강화', '시지프스: 더 마스', '허쉬', '조선구마사', '철인왕후',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 10여편이 일부 출연자의 확진 판정 등으로 제작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출연진과 제작진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한층 강화된 지침에 따라 방역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가요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공연을 추진하거나 연말 시즌 공연을 확대하려던 가수들이 감염증 재확산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승환과 밴드 자우림,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이 콘서트를 취소했다. 각 소속사 측은 "수도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서울시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아이돌 그룹 빅톤은 스태프의 확진 판정에 12월1일 새 앨범 발매 일정을 미뤘다. 멤버들은 진단검사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분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줄어들 극장 관객...또 다시 '보릿고개'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의 한 스태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19일 확진 판정 시기가 영화 촬영 이후여서 강화

늘, 한효주 등 출연진 및 제작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스태프의 일부 동료들도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영화계는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초 배포한 제작현장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대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워낙 가파른 탓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극장가도 다시 긴장하고 있다. 10월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객석의 100%를 운운한 각 극장은 하루 평균 7~8만 여명의 관객을 모아왔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른 좌석 띄어앉기 등을 다시 시행하면서 4~5만명대로 관객이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극장가의 한숨은 더욱 커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즐거운 TV·똑똑한 TV...TV프로그램 (27일·금)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시각장애인용 위한 화면해설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EBS 1	지역 민 방	채 널 A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KBS네트웍크 특선- 행복충청전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월, 수) 11:55 UHD송터	5: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월, 수)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1부) 8:00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2, 3부) 10:00 일일연속극- 누가 뭐래도(월, 수) 10:40 지구촌 뉴스 11:00 주말드라마-오 삼광빌라(월, 수, 19, 20회)	5:00 UHD영상스페셜 〈산책〉(월, 수)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일일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월, 수) 9:30 930뉴스 9:45 기분 좋은 날(월, 수) 10:45 트로트의 민족 스페셜(월, 수, 19, 20회)	5:00 접속 무비월드(월, 수)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5 아침연속극- 불새 2020(월, 수) 9:10 좋은 아침(월, 수) 10:10 뉴스 10:30 특목 정보 브런치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12뉴스 12:50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월, 수) 2:00 뉴스브리핑 4:00 공군의 이야기 Y(월, 수) 5:00 오뉴스 5:50 순창포차 세상에 이런 일(월, 수) 6:50 생방송 투데이(1, 2부) 7:50 8뉴스(1, 2부) 9:00 공군의 이야기 Y(월, 수) 10:00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월, 수) 11:20 강호동의 밤심스(월, 수) 12:40 트롯신이 댕다2- 라스트 찬스(월, 수)	5:00 양초보 영어 5:30 클래스 e(2)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띠따뽀 띠따뽀 7:15 로보가돌리 7:30 뽀뽀뽀 뽀로로 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8:00 동물영 유치원 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2 8:45 워터지 유적박스 9:00 레안후루 루비 9:15 도깨비 가족 9:30 물방 9:40 부모목장 0.1%의 비밀 10:10 아옹양영 귀여워2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정오뉴스 12:10 EBS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복 채널e 12:30 클래스 e(3) 13:00 파란만장 13:55 다큐 잇앳 14:45 위안공대 리턴즈(월, 수) 15:40 페파 피그 15:45 꼬마 히어로 슈퍼팩 16:00 방귀대장 풍뎉이 16:15 핫도그랑 만물아들개 16:30 동물영 유치원 16:50 해피하우스 17:00 EBS뉴스 17:20 형사 기재트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18:00 생활속 특목 보나리나 19:00 미라클러스: 레이다버그와 블랙 19:30 자이언트 팅TV 19:45 한국어 신다 20:35 아수 각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명의 22: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3:30 고강이를 부탁해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24:55 EBS비즈니스 리뷰 모먼트 1:15 금요극장(그린 파파아 황기)	TJB (대전) 042-281-1101 10:30 행복설계 일파백기(월, 수) 16:30 이슈 & 파올로 17:50 여행, 정안탈가 18:20 오프라인 CJB (청주) 043-279-3800 16:00 특선다큐 〈전리 파일〉 17:50 내모습 18:50 시사광명 20:30 8뉴스 KNN (부산 경남) 051-850-9000 5:00 특별보합성세 스페셜 16:00 공개극리니 헬(월, 수)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100세 시대 건강하소서(월, 수) TBC (대구) 053-760-2200 9:10 행복설계 일파백기(월, 수) 18:00 지금 당장은 감시대(월, 수) 18:50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월, 수) 20:30 8뉴스 UBC (울산) 052-228-6200 10:30 특목 정보 브런치(월, 수) 17:50 울산 아트쇼 36.5(월, 수) 18:50 좋은날 좋은시간(월, 수) 24:40 최강 1고시(월, 수) KBC (광주) 062-650-3094 5:00 굿모닝 스페셜 16: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17:50 해양취재 포스트 코로나의 희망 18:55 토크 고향이 좋다(월, 수) JTV (전주) 063-250-5350 10:30 행복설계 일파백기(월, 수) 16:00 공공의장 시청자 스페셜(월, 수) 17:50 화창기행(월, 수) 18:50 신장일회 전원의 길 스페셜(월, 수) G1 (강원) 033-248-5000 5:00 특별보합성세(월, 수) 11:30 고향이 보인다(월, 수) 16:00 상상 고향명곡(월, 수) 18:50 강연대거진 세븐(월, 수) OBS (경기 안원) 032-670-5000 13:40 우리TV-속담이 야호(월, 수) 14:30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포트(월, 수) 16:30 뉴스-오늘(월, 수) 21:40 우리TV-특별기획 세계의 풍경(월, 수) 23:00 (마지막 보이 스카우트)	5:00 채널A 스페셜 〈전리 파일〉 6:00 채널A 시청자마당 7:00 수다현(월, 수) 8:00 행복한 아침(월, 수) 9:20 김민희의 돌직구 쇼(월, 수) 10:50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스페셜(월, 수) 11:50 아이콘택트 화제의 눈맞춤(월, 수) 12:00 뉴스A LIVE 1:10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2(월, 수) 채널A 다시보기 www.channela.com 3:10 관찰카메라 24(월, 수) 4:20 서민갑부(월, 수) 5:20 뉴스 플10(월, 수) 7:00 뉴스A(월, 수) 8:00 요즘 음악 금쪽같은 내새끼(월, 수) 9:30 인생 건강 점검 개뽤다귀(월, 수) 11:00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월, 수) 12:30 침묵에는 아이콘택트(월, 수)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오늘의 채널A 뉴스A LIVE(낮 12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겨울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것이다. 문제는, 1, 2차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사우나, 학원, 식당 등 일상 감염이 동시다발로 일어나 역학 추적조차 쉽지 않다. 곧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데, 전문가와 해법을 찾아본다.						
T V 조 선		J T B C	M B N			
6:00 건강한 집(월, 수) 7:00 영동발발 풍운이와 친구들 시즌5(월, 수) 7:30 뉴스 퍼레이드(월, 수) 8:40 굿모닝 정보세상(월, 수) 9:05 신동방송(월, 수) 10:30 TV조선 토일드라마-복수해라(월, 수)	6:00 시청자의회(월, 수) 7:00 예코와 친구들(월, 수) 7:30 JTBC뉴스 아침(월, 수) 8:30 인생토크쇼 더빙포인트(월, 수) 9:50 심어게인(월, 수) 11:50 경쟁캠핑 스페셜(월, 수)	4:20 알토란(월, 수) 6:00 열린TV 열린세상(월, 수) 7:00 굿모닝 MBN(월, 수) 8:00 아침 & 매일경제(월, 수) 9:20 전국네트워킹뉴스(월, 수) 9:30 생생 정보마당(월, 수) 10:20 인생앨범 에스터데이(월, 수) 12:00 더 먹고 가(월, 수) 1:30 MBN프레스룸(월, 수) 2:50 안녕 자두야4-자두와 친구들(월, 수) 3:20 현장프로 특종세상(월, 수) 4:30 MBN뉴스와이드(월, 수) 5:55 뉴스파이터(월, 수) 7:20 MBN종합뉴스(월, 수) 8:30 천기누설(월, 수) 9:50 나야나(월, 수) 11:00 인생앨범 에스터데이(월, 수) 12:20 밤샘토론(월, 수) ※ 1:10 소나무				